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3.13 (통권239호)

경제 이슈

- 세계 주요국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 유지

경영 노트

- 기본경영(Back to basic)으로 돌아가기

사회 트렌드

- 신소비 트렌드, 블루슈머 10

차이나 리포트

- 중국 4조 위안 경기부양자금의 향방

저널 브리프

- 마쓰시타의 불황을 이기는 12가지 지혜

洗心錄

- 자기 안의 '낙상매(落傷鷹)'를 깨워라

□ 세계 주요국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 OECD 30개 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진입 국면으로 평가됨
 - 경제성장률: 2008년 4/4분기에 미국은 전기대비 -1.6%, 유럽 -1.5%, 일본, -3.2%, 한국 -5.6% 등으로 대다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소비자물가: 2009년 1월 OECD 평균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를 기록하고 있어 물가 수치만으로 볼 때는 1월에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원자재 가격: 국제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CRB지수는 2008년 8월 대비 55% 이상 하락하고 수요 부진으로 인한 가격파괴 현상은 소비자물가 하락세와 더불어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증대시킴

- 한편, OECD의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07년 12월 101.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1월에 92.3을 기록하고 있어 경기 침체를 예고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 유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12일)는 국내 경기 부진 심화, 물가상승세 둔화,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를 유지
 - 국내 경기: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세계 경기 침체 심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성장 하향위험이 큼
 - 소비자물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압력 저하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시장: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다소 완화되면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증가

- 정책기조를 평가한다면,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 기본경영(Back to basic)으로 돌아가기*

-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아서디리틀(ADL)은 불경기와 호경기에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을 분석하여 공통 특징을 발표함
 - 지난 10년 동안 주가 성과가 월등하고 사업 내용이 다양한 기업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 성공비결로 볼 수 있는 공통점을 8가지로 요약했음
 - 이런 8가지는 놀랄 만큼 상식적인 것이어서 소위 ‘기본경영(Back to basic)’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음
- 지속적인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의 8가지 특징

구분	내용
1. 지역, 상품, 고객층 분산	· 지속적으로 성과를 낸 기업들은 지역과 상품, 고객층을 분산해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최소화
2. 근접상품 확대	· 자사의 주력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근접상품군’을 확대 · 기존 상품 간의 호환성과 보완성을 갖춘 제품의 출시는 상품 간 시너지를 높여 묶음(Bundle)판매, 개별판매 후 부가판매를 가능케 함
3. 브랜드 강화	· 불황기에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를 강화
4. 글로벌화 지향	· 고객, 상품, 제조의 글로벌화를 지향하여 성장기반 확대
5. 핵심사업 확장	· 가장 잘 아는 분야와 연관된 사업 확장만을 고수
6. 1위 지향 확대	· 핵심 역량이 될 분야에서는 반드시 글로벌 1위를 지향해 그것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제품과 분야에 적용
7. 확실한 M&A	· 기존 사업과 상품, 고객 관점에서 효과가 확실한 인수합병(M&A)만을 신중히 실행
8. 지속적 비용절감	· 경비 지출 관리에 있어 자사가 다른 회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우위를 유지

- 성장기에 원칙 준수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경우 불황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경영 자세를 견지

* 이 글은 ‘왜 기본경영인가’(매일경제신문, 2009.3.4)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신소비 트렌드, 블루슈머 10

- 통계청이 지난 10일 사회 인구 소비 통계를 분석해 올해 새롭게 떠오를 ‘블루슈머’ 10가지 유형을 발표
 - 10개 트렌드 중 3개가 불황에 연결돼 경기 침체 그늘을 짐작케 함

유형	관련 서비스 및 사업 아이템
백수탈출 (Job See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수 급증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증가 · 진로 및 적성검사 대행업, 이미지 컨설팅, 헤드헌트
똑똑한 지갑족 (Smart Consu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황으로 합리적 소비가 늘어날 전망 · 각종 대여업, 온라인 중고장터 등
나홀로 가구 (Single Househ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대상의 싱글산업이 성행할 전망 · 이마트에는 생선회가 6~7조각 들어있는 1인용까지 등장 · 1인용 소파, 소형 복합가전, 미니 아파트 등
녹색 세대 (Green Gen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웰빙은 여전히 소비의 핵심 키워드 · 강남구는 지난해 3월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전체 22만 가구 중 10만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 · 절수형 변기, 에너지 절약 램프
U-쇼핑세대 (Ubiquitous Sho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쇼핑 증가로 관련 서비스 증가 · 온라인 창업 컨설팅, 쇼핑몰 제품촬영 대행, 스튜디오 대여
내나라 여행족 (Intrabound Trave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환율로 외국보다는 국내 여행객이 증가 · 아웃도어 의류, 국내 여행 상품
자연애 밥상족 (Love Organic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을거리 파동으로 유기농·친환경 제품 소비자 증가 · 친환경 농산물 취급점포는 2004년 1091개에서 2007년 1650개로 늘어남 · 홈쿠킹 제품, 간이 텃밭용 화분 및 농기구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 (Baby Expecting Cou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임여성 수는 2006년 12만 5793명, 2007년 13만 8519명이며 계속 증가할 전망 · 불임 방지용 남성 속옷, 불임 방지 요가 교실
거울 보는 남자 (Groo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위한 카페 ‘뷰티 움므’는 회원수가 1만 3000명에 이름 · 남성용 기능성 화장품, 액세서리, 몸매 보정 속옷
가려운 아이들 (Itchy K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초·중·고교생 762만 명 가운데 5.7%인 43만 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음 · 새집증후군 예방 제품, 아토피 치료 캠프

□ 중국 4조 위안 경기부양자금의 향방

■ (개요) 3월 6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장평(張平) 주임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의 구체적인 투입계획에 대해 해명

- 투입 자금 분담 :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은 중앙과 지방 정부, 기업 투자 등으로 이루어진 것임
 - 4조 위안 중 중앙정부는 1조 1,800억 위안, 즉 전체의 30% 정도를 부담
 - 계획 내 교육시설 확충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 비중은 2:1로 함
 -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중부지역의 경우 평방미터 당 중앙정부는 300 위안을 보조, 서부지역은 400 위안, 동부지역은 직접 보조를 하지 않음

■ (투입방향) 세계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작년 11월의 원안을 일부 변경

- 경기부양자금은 주요하게 민생, '삼농', 기초건설(SOC), 생태보호 등 분야에 3조 위안(750조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진피해복구에 지원
 - 반면, 일반 가공업과 중복 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양
- 민생 프로젝트 지원 : 농촌 지역의 음수(飲水)체계, 전력망, 도로 연료용 가스시설 건설, 노후주택 개조 및 유목민의 정착에 3,700억 위안(92조 5,000억 원) 지원
- 기초시설 투자 : 철도망, 도로망, 공항, 수리(水利)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총 1조 5,000억 위안(375조 원) 투자 예정
- 생태환경 보호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 축소와 에너지 절약에 총 2,100억 위안(52조 5,000억 원) 투자 예정
- 구조조정 지원 :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에 총 3,700억 위안(92조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

- 지진피해 복구 지원 : 2008년 5월 발생한 사천(四川)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에 1조 위안(250조 원)을 지원
- (평가) 금번 투입 계획은 대체로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며, 향후 세계와 중국 내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세부 조정이 가해 질 전망
 - 기초건설 투자가 핵심 : 경기부양자금의 40% 정도를 교통망과 수리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경기부양의 핵심을 기초건설에 둠
 - 지진피해 복구 특수 : 당초 예상보다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배정됨으로써 사천 지역이 경기부양의 한 축으로 부상
 -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지원 미흡 : 기간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미흡
 - 투자 집행시기 미정 : 2년간에 걸친 경기부양자금의 집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 증대
 - 재정적자 확대 : 중국은 재정 확보를 위해 2009년에만 총 9,500억 위안(237조 5천억 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 이는 2008년 GDP의 25%에 해당하는 규모
- 중국 경기부양자금의 구체적 투입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 중국내에서의 불황 극복 관련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중국 경기부양의 핵심인 SOC 건설에 필요한 기계장비와 건설자재의 시장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활용
 - 또한 지진피해 복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인구 2억 명 이상의 거대한 잠재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 마련이 필요

□ 마쓰시타의 불황을 이기는 12가지 지혜*

- 최근 불황으로 과거 경영자들의 불황대처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파나소닉의 창업자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방식을 돌아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불황기 경영 지혜

<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불황을 이기는 12가지 지혜 >

원칙	내용
각오를 단단히 하라	· 위기를 이겨내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
비관하지 말라	·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낙관적인 사고를 유지
경영이념을 지켜라	· 자사의 핵심가치와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근성을 발휘
발상을 바꾸면 도약의 기회다	·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을 도모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한이다	· 발전은 끝이 없는 만큼 깊이 고민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
호황도 좋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	· 만사가 순조로울 수는 없으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불황일수록 인재를 키워라	· 불황은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쉬어가며 용기를 기르자	· 불황기에 무리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업의 향후 방향성을 성찰하는 기회로 활용
불황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 불황에는 이유가 있으며 인간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음
책임은 나한테 있다	· 경영자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항상 숙지하고 임직원을 이끌어야함
중지를 모아 경영하라	· 전 임직원의 지혜를 모아 난관을 타개
치(治)를 알고 난(亂)을 잊지 않는다	· 과거 불황의 교훈을 자양분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

자료: ‘마쓰시타의 불황을 이기는 12가지 지혜’

- 경영자는 불황이 주는 기회를 발판삼아 경영이념을 공고히 하고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총집결해야 함
 - 무엇보다도 기업과 임직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위기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

*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2009.3.11)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자기 안의 ‘낙상매(落傷鷹)’를 깨워라

혹시 ‘낙상매’를 알고 있는가? 어미 매는 새끼 매를 먹일 때마다 공중에서 먹이를 떨어뜨린다. 그 먹이가 새끼들이 있는 등지 바로 위로 떨어지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새끼들은 제 힘으로 그 먹이를 차지하려고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다가 절벽의 등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놈도 생긴다. 어미 매가 노리는 것이 이 ‘낙상매’이다. 새끼 때 제 힘으로 시련을 이겨낸 매가 그 보상으로 강하고 역센 매가 된다는 것을 어미 매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뉴스앵커인 백지연 씨는 그의 저서 ‘자기설득파워’에서 고난의 극복 과정에서 발휘되는 자신의 깊은 속 선천적 능력을 ‘낙상매’에 비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마다 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들은 흔히 가진 것이 없음을 아쉬워한다. 세상의 기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재된 ‘낙상매’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장벽이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수시로 나를 공격하는 나태와 허약해지는 마음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된 ‘낙상매’의 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내재된 이 힘이 기폭제가 될 때 어느 순간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우리 앞으로 유인될 수 있다.

환경이나 외부조건이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응하는 개인의 태도이며 궁극적으로 그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시험해 보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혀를 내두를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신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잠재된 내재적 능력의 발휘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다.
지시한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직원과 지시한 것만을 하는 직원이다.”**
- 크리스토퍼 폴리 (1890~1957) : 미국 작가